

# gallery **simon**

## 3 Acts 5 Scenes-Happy Together 3막5장-해피 투게더

기획\_송미숙

참여작가\_장화진, 박영남, 오원배, 김태호, 운동천

일정: 2013.6.13(목) - 7.26(금)

장소: 갤러리 시몬(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3 Acts 5 Scenes-Happy Together)



갤러리 시몬에서는 6월을 맞아 기획전 <3 Acts 5 Scenes-Happy Together 3막5장-해피 투게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송미숙 성신여대 명예교수(미학, 평론)의 기획으로 장화진, 박영남, 오원배, 김태호, 운동천이 참여하여 3 공간에서 5명의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태로 보여줄 예정이다. 전시는 2013년 6월13일(목)부터 7월26일(금)까지 개최된다.

전시는 갤러리의 공간과 크기에 따라 3막으로 나뉜다. 1막(1층)에는 손맛의 촉각적인 성질과 기하적인 흑백 구성을 즐겨 사용하는 박영남 작가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거울과 같이 매끈한 표면과 표현을 배제, 거의 미니멀리즘 적인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김태호 작가를 대비시켰다. 1층의 한 벽면을 따라 장화진 작가의 타일 시리즈를 놓아 2층에 그의 창문, 문 시리즈와 연결 하도록 했다. 2막(2층)은 장화진 작가의 창문들 중 가장 탁월한 뒤샹의 재구성 작업을 마주하

# gallery **simon**

게 되며, 이에 조응하듯 그의 문 La Porte/Gate 시리즈가 계속되며 재구성된 한국 근대사의 파편들을 토해 역사의 기억을 더듬게 될 것이다. 같은 층에 윤동천의 반쯤은 심각한 듯하고, 반쯤은 비트겐슈타인 적인 말장난에 기초한 회화작업이 선보인다. 3막(3층)은 이 전시의 클라이막스로 오원배의 인체를 비롯한 온갖 체/body의 제스처들의 회화적 드로잉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다.

기획자의 이번 전시의 의도는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면서 각 작가들의 개인적 에피소드와 드라마들이 연극의 장면들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미의 발자국을 따르는 손가락의 움직임(박영남)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다음 순간 펄이 섞인 안료의 집적으로 올린 추상 색 면은 태양의 스펙트럼을 연상케 하는 현란한 빛의 움직임으로 몰입하게 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먹색의 화면은 고립된 대상의 윤곽선을 좇게 만든다(김태호). 잊어져 간 근대건축의 파편들, 창문, 문/입구, 타일이 때로는 뼈아픈 한국 근대사의 기억을 환기케 하는 동시에, 기하학적 패턴, 색 띠의 레디메이드로 번안한 모더니즘 추상미학의 디자인이 되어 감성을 자극한다(장화진). 그런가 하면, 모더니즘을 개념적으로 풀이한 듯싶은 화면들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언어와 이미지의 놀이로 이끌며 관념의 비틀기에 빠져들게도 한다(윤동천). 사회적 존재의 물음을 '체/몸'의 기념비같이 역동적이고 무거운 제스처를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해왔으나 이제는 조금은 자유롭고 열린 시각으로 일기를 쓰듯 관념을 객관화시키는 낯장 짜리 드로잉들의 연습(오원배)으로 끝나는 이 3막 공간의 전시는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얻어내리라 기대해 본다.

부제인 '해피 투게더'는 홍콩의 스타일리스트 영화감독인 양가위가 감독 연출하고 양조위와 장국영이 주연을 맡았던 동명의 영화에서 따왔다. 영화의 플롯하고는 한참 거리가 있지만 감독인 양가위가 자신의 영화에 대한 진술, 즉 '한 사람이 그 자신과 그의 과거와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행복한 관계가 시작되며 다른 사람들과 미래에 보다 많은 가능성에 열리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란 구절이, 그리고 영화의 아이러니한 제목이 마음에 들어 택했다고 기획자는 말한다.